ECB 기준금리 동결의 의미: 先 자구책 마련 後 경기부양

이정환 선임연구원

유럽중앙은행(ECB)은 기준금리를 동결(1.0%)하였으나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를 보임.

- 유로존 위기에 대한 ECB의 상황 인식과 대응 자세에 대해 시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임.
  - 유럽 증시는 6월 7일 전날 종가대비 2% 이상 상승함.
- ECB 총재는 필요에 따라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추가 부양 조치 가능성을 피력함.

전문가들은 ECB의 기준금리 동결은 유럽 정부들에 대한 압박으로 분석함.

- ECB는 선제적 금리 인하가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유럽 정부들에 대한 압박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.
  - 선불리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다가 유럽 정부들의 자구 의지가 꺾일 수 있기 때문임.
  -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동결이 ECB의 대정치권 압력을 최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함.
- ECB는 3년 만기 장기대출프로그램(LTRO)이나 국채 매입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.
  -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(장기 대출 및 국채 매입)들은 모두 일시적인 처방이며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없다면 ECB의 지원도 없다는 것을 암시함.
  - 다만, ECB는 고정금리 단기 자금 대출을 최소 2013년 1월 15일까지 연장하고, 3개월 만기 고정금리 대출도 2012년 말까지 무제한으로 실시하기로 함.
- 그러나 전문가들은 先 자구책 後 경기부양 주장에도 불구하고 7월에는 기준금리가 인하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함.
  - 그리스 2차 총선에서 좌파 세력이 득세하거나 스페인 은행 위기가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ECB로서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기 때문임.

(Wall Street Journal, 6/7)